

화학섬유-염색산업 개성공단 진출!

산자부, 206개 섬유관련 기업 진출 희망 ... 총 투자액 4억2500만달러

북한 개성공단 진출에 대해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학섬유 및 염색 관련 기업들도 북한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철)를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할 희망하는 섬유기업은 총 206사에 달하며 공장부지 80만평, 총 투자금액 4억2465만달러, 현지 고용인력 4만3000명, 물동량은 월간 약 9000TEU(왕복기준)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의 수요조사

구 분	기업수 (사)	현지인력 (명)	투자금액 (1000달러)	공장부지 (평)	소요전력 (kw/h)	소요용수 (MT/일)	통신회선 (회선)	물동량 (TEU/월)
화학섬유	2	200	7,333	14,000	7,000	133	9	109
방 적	19	3,935	58,550	104,500	1,177,910	5,296	100	813
제 직	41	4,215	143,469	233,900	97,580	147,823	302	2,057
편 직	9	1,510	10,547	23,300	2,485	961	61	1,037
의 류	82	27,560	82,912	193,850	67,090	5,302	709	1,850
염 색	33	3,240	100,251	161,200	50,800	165,847	267	2,392
부자재	3	370	1,913	5,000	770	4	17	17
기 타	17	2,375	19,684	65,000	7,622	1,411	108	874
합 계	206	43,423	424,659	800,750	1,411,257	326,777	1,575	9,149

전체 섬유 관련기업 가운데에는 의류 생산기업이 82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직 41사, 염색 33사, 방적 19사, 편직 9사, 부자재 3사, 화학섬유 2사, 기타 17사가 입주할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3>